

다문화가정의 사소한 갈등: <다문화 고부 열전>을 중심으로

'Trivial' Conflicts of Multicultural Families: Focused on the Program <Multicultural Fierce Conflicts between Mother-in-law and Daughter-in-law>

강현민
인하대학교 다문화학과

Hyeonmin Kang(miirulove@naver.com)

요약

본 연구는 한국의 다문화 현실 속에서 미디어가 결혼이민자여성을 어떻게 재현하는지를 분석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특히, EBS 다큐멘터리 <다문화 고부 열전>을 분석하여 이 콘텐츠가 여행서사를 채택하여 며느리와 시어머니 간의 고부 갈등과 그 갈등의 해결 과정을 보여준다는 것을 밝혔다. 여행서사는 며느리의 고향으로 시어머니가 함께 여행함으로써 상호이해와 문화 다양성을 보여주는 듯 하지만, 이들이 처한 문제와 갈등이 여행으로 해결될 수 있는 '사소한' 개인들의 문제로 보이게 한다. 이러한 재현 방식을 통해 보여지는 이들의 삶은 '다큐멘터리'라는 장르의 특성상 수용자들이 '사실 그대로의 것'으로 받아들여지게 한다. 즉, 이러한 재현은 이들이 처한 사회 구조적인 문제나 제도적 문제들이 은폐시킬 수 있으며, 이들의 갈등이 개인의 노력으로 해결 가능한 문제로 인식시킬 위험이 있다.

■ 중심어 : | 미디어 재현 | 콘텐츠 분석 | 다문화 가족 | 결혼이주여성 | 다큐멘터리 분석 |

Abstract

This study aims to analyze how the media represents marriage immigrant women in the reality of Korean multicultural society. In particular, by analyzing an EBS documentary titled, 'Multicultural Fierce Conflicts between Mother-in-law and Daughter-in-law', this study clarifies that this content adopted travel narrative to show conflicts between mother-in-law and daughter-in-law and solution of these conflicts. The documentary apparently shows mutual understanding and cultural diversity but still keeps representing these conflicts as individual's 'trivial' problems. Under this way of representation, social and structural problem or institutional problem in reality can be covered up by the medium of travel. It makes such a conflict look like an individual's 'trivial' problem can be solved by individuals.

■ keyword : | Media Representation | Contents Analysis | Multicultural Families | Marriage Immigrant Women | Documentary Analysis |

I. 서론

한국의 다문화 사회로의 진입은 통계 수치상으로는

사람들의 인식에서나 이제 부정할 수 없는 사실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하지만 현상으로서의 다문화 사회는 우리 사회가 나아가야 할 방향인 다문화주의, 다양성 등

접수일자 : 2015년 07월 02일

수정일자 : 2015년 07월 23일

심사완료일 : 2015년 07월 23일

교신저자 : 강현민, e-mail : miirulove@naver.com

에 관한 논의를 담지해주지 못한다. 한민족이라는 단일 민족 이데올로기가 강한 사회에서 갑작스레 도래한 다문화주의는 그 폭만큼이나 다양한 문화적, 사회적 혼란을 일으키고 있다. 특히 한국 사회의 다문화시대를 연결혼이주여성은 외국인근로자를 바라보는 것과는 다른 미묘하고 복잡한 시선의 대상이 되고 있다. 결혼이주여성은 방문 체류 외국인이나 유학생과는 달리 한국에서 가족을 구성하여 장기간 지속적인 생활을 목적으로 하는 사람들이다. 이들은 체류가 아닌 거주로써 한국 사회에서의 삶을 영위하는 사람들이지만 이들은 단일 혈통, 단일 민족의 자부심을 갖아간 장본인으로 여겨지고 있다[1].

결혼이민자여성은 한국 사회의 다문화현상을 이끈 동인으로 이제는 한국 사회의 정주인(定住人)이지만 아직도 ‘한민족’ 담론에 의하여 이방인이며, 가부장적이고 고부관계 하에서는 약자이다. 한국 사회의 맥락 속에서 결혼이민자여성은 특수한 맥락을 가지고 있다. 국내 외국인 남성이 이주노동자라는 체류 자격을 통해 입국하는 경우가 대다수인 것에 비해 국내 외국인 여성은 결혼을 통해 이주하는 경우가 많다. 결혼이민자여성은 상대적으로 저개발국가의 출신으로 낮은 경제적 수준의 국가에서 결혼을 통해 신분 상승을 꿈꾸는 여성으로 인식되고 있다. 이러한 인식으로 저개발국가 출신의 결혼이민자여성은 민족적, 문화적, 종교적 다양성을 인정받기 보다는 동화의 대상으로 간주된다. 현재 정책적으로 결혼이민자여성은 다른 다문화 구성원들에 비해 월등히 많은 정책적 지원을 받는 수혜를 받는데, 이 배경에는 이들을 사회·경제적 지위가 낮은 남성들의 결혼 문제의 해결책으로 보거나 저출산 문제의 대안으로 보는 시선이 존재한다.

이러한 이미지는 당사자인 다문화가정뿐만 아니라 일반 대중에게도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진다. 결혼이민자여성과 직접적인 관계를 맺지 않고 있는 대중에게 다문화는 미디어를 통해 이미지·의미화 되는 경향이 높다. 따라서 미디어가 재현하는 결혼이민자 여성의 이야기는 한국의 다문화 담론의 중심으로 볼 수 있으며 이와 같이 재현되는 미디어의 의미를 파악하는 것은 곧 대중이 결혼이민자여성과 다문화 담론을 받아들이는

방식을 설명하는 것으로 이어질 수 있다.

본 연구는 한국의 다문화 현실 속에서 미디어가 결혼이민자여성을 어떻게 재현하는지를 분석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이에 연구문제는 EBS 다큐멘터리 <다문화 고부 열전>의 서사구조가 어떻게 나타나고 있으며, 이러한 서사구조가 다문화가정을 어떻게 재현하고 있는가이다. 이를 통하여 미디어의 재현 방식이 결혼이민자여성을 어떻게 의미화하고 있는지를 밝힐 것이다.

II. 미디어의 다문화 재현 방식

한국 사회의 구성원이 다양해짐에 따라 미디어에서도 이 새로운 구성원에 대한 재현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한 예로 2007년에 방영되었던 드라마 <황금 신부>는 본격적으로 결혼이주여성이 주인공이 되었던 드라마이다. 다문화현상과 더불어 이 드라마는 시청자의 큰 주목을 받았고 동시간대 시청률 1위를 달성함과 동시에, 2008년 서울드라마어워즈의 장편부문 우수상, 도쿄 페스티벌에서 특별상, 2009년 상하이국제TV페스티벌에서 메그놀리아 상을 받는 등 큰 이슈가 되었다. 이 후 다수의 드라마와 영화에서 다문화 구성원이 본격적으로 등장하였고, 영화에서는 본격적으로 다문화 현상을 다루는 다문화 영화가 새로운 장르로 생겨나기도 하였다.

미디어가 그리는 다문화 현상을 우리는 어떻게 받아들일까. 리프만(Lippman)에 의하면 우리는 미디어가 그려내는 현실을 객관적 현실인 것처럼 생각한다[2]. 우리는 미디어를 통한 간접 경험에 개인의 직접 경험만큼이나 큰 의미를 부여하며, 미디어에 재현된 이미지와 의미는 개인의 인식에 큰 영향을 미친다. 미디어는 상징적인 언어와 기호, 이미지를 이용하여 특정한 개념을 조직하고 배열하고 분류하는 방식에 관여한다. 이를 통해 미디어는 특정한 개념의 새로운 관계와 의미를 만드는 데 개입한다. 미디어의 재현 과정에서 어떠한 개념을 어떻게 재현할 것인가 하는 권력에 주목한 홀(Hall)의 주장, 미디어가 재현하는 방식이 순수한 현실의 반영이 아니라 다분히 이데올로기적이라는 것은 한국 사회의 다문화 현실을 다루는 미디어에도 예외적이지 않

다.

결혼이민자여성이나 다문화 현상을 다루는 다수의 미디어들은 현상을 보여주며 이들과 대중들을 재결합시킬 것처럼 보인다. 다문화를 다루는 많은 텔레비전 프로그램들은 중국, 베트남, 캄보디아 등의 아시아 출신의 결혼이민자여성을 프로그램의 주인공으로 대상화한다.* 대중은 현실에서 쉽게 접하지 못하는 결혼이민자여성을 미디어를 통하여 쉽게 자주 접할 수 있고 이들의 삶을 들여다볼 수 있다. 이들의 삶이 미디어에 재현되는 횟수가 많아지면서 대중은 이들을 ‘친밀하게’ 여기고 이들의 삶이 더 이상 불평등하지 않다고 여기게 된다. 어떤 사람들은 권력을 가지지 못한 이들이 미디어에 의해 주목받고 담론화되는 것이 이들의 이야기를 주류 문화에 편입시키는 하나의 방안이라고 이야기하기도 한다. 하지만 이 때 중요한 것은 이들의 이야기를 ‘어떻게’ 재현하는가 하는 재현 방식의 문제이다.

미디어를 소유한 집단은 지배적인 집단으로 콘텐츠의 대상이 되는 피지배적 집단과 불평등한 권력관계를 가지고 있다. 이러한 미디어가 자신의 시선으로 피지배 집단인 다문화 구성원들의 이미지와 담론을 생산하고 유포하는 것은 피지배집단의 제한된 이미지를 자연스럽게 만들어 이들을 타자화시키는 것을 의미한다[3]. 결혼이민자여성의 목소리가 정면에 드러나지 않거나 그들의 삶을 그들의 문화적 배경과 관습으로부터 탈맥락화시키는 것 역시 이에 해당한다. 우리 사회의 미디어에 등장하는 결혼이민자여성은 대체적으로 ‘문제화’나 ‘신비화’라는 극단적인 두 가지 이미지로 그려지며 이는 곧 대중으로 하여금 ‘경계심’과 ‘온정주의’라는 반응을 유도하고 있다[4]. 이와 같이 다문화 구성원이 주류 미디어에 의해 주로 ‘온정과 동정의 대상이자, 고립된 일탈자 혹은 부적응자, 사회복지의 수혜자’로 재현되는 현상은 우리 사회와 미디어가 선택한 ‘타자의 재현’ 방식이다[5].

이주여성과 같은 소수자가 스스로를 재현할 힘을 가지지 못한다는 점은 미디어의 재현 연구에서 주목해야 할 문제이다[3]. 뉴스와 영화 드라마와 달리 본 연구에

* 외국인 노동자나 결혼이민자여성의 남편인 한국인 남성은 결혼이민자여성에 비해 상대적으로 적게 다루거나 다룬다 하더라도 주인공으로 집중 조명하는 경우는 많지 않다.

서 분석 대상으로 삼고 있는 다큐멘터리 장르의 경우, 혹자는 이주여성 스스로가 목소리를 내는 부분을 지적할지도 모른다. 왜냐하면 누가 말하고 있는가는 누가 주어진 문제에 권력을 가지고 있는가와 밀접상통하기 때문이다. 다큐멘터리라는 장르는 드라마나 영화와는 달리 현실에 존재하는 사람이나 사건을 묘사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중매체는 현실을 있는 그대로 반영하기 보다는 장르적 관습에 따라 의식적으로 무의식적으로 특정한 틀을 가지고 현실을 재구성한다. 따라서 다큐멘터리가 현실에 존재하는 사실들을 어떻게 선택하고, 선택하지 않고, 배열하는가에 따라서 텍스트가 전달하는 현실 즉, 재현된 현실이 다르게 의미화될 수 있는 것이다. 사실 다큐멘터리가 사실에 기반을 둔 장르라고 해서 소수자를 재현하는데 내재된 권력의 문제가 존재하지 않는 것은 아니다[6]. 다큐멘터리에서 관행적으로 사용하는 영상 기법들이 텍스트에서 다루는 소외 집단을 ‘우리’와 다른 ‘그들’로 인식하게 하는 결과를 가지고 오며, 본래의 소외 문제에 대한 조명과 해결책 제시라는 의도에서 벗어나 시청자의 호기심을 충족시키고 소외 집단을 더욱더 사회로부터 격리하게 한다. 다문화가정을 다룬 다큐멘터를 연구한 황라경(2009)은 다큐멘터리가 다문화가정의 결혼이주여성의 삶을 개인의 사사로운 이야기에 초점을 맞춰 재현하다보니 다문화 현상을 사회정치적 문제로부터 분리시켜 하나의 흥미로운 이야깃거리로만 전락시켜버린다고 결론짓기도 하였다[7].

이와 같은 한국 사회에서 다문화와 관련 미디어 연구는 등장인물과 서사구조에 초점을 맞추는 연구와 다문화 담론 분석의 측면에서 이루어지고 있다[8]. 등장인물과 서사 구조에 초점을 맞추는 연구들은 다문화 서사가 미디어에 어떻게 재현되고 있는지를 다루는 연구들이다[9][10]. 담론 분석이라는 측면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연구들은 다문화의 현주소를 파악하고 그 지형을 제공하는 연구들로 드라마, 다큐멘터리, 광고 등 다양한 장르의 미디어 분석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다[11]. 그러나 이 두 연구의 측면은 명확하게 구별할 수 없는 것으로 상호 보완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최근의 휴먼 다큐멘터리는 결혼이민자여성의 생존의

문제에서 생활을 그리는 것으로 한 걸음 더 나아갔다. 휴먼 다큐멘터리는 인물의 일상생활과 이야기를 보여줌으로써 인물을 둘러싼 사회정치적 맥락을 드러내지 않게 그리기도 한다. 하지만 역으로 일상생활과 개인적 이야기에 초점을 둔 재현 방식을 분석해보면 무엇이 말해지고 있는지 혹은 무엇이 말해지지 않고 있는지에 대한 비판적인 관점을 발전시킬 수 있다.

III. <다문화 고부열전>의 서사구조 분석

채트면에 따르면 서사는 누구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는가는 이야기의 측면과 이야기가 어떻게 전달되는가의 담화의 측면으로 나누어진다. 이야기의 측면은 먼저, 사건의 전개와 상관없이 텍스트의 기저에 깔려 있는 이야기의 구성요소들 즉, 인물이나 배경 등의 대립적 개념들을 밝혀냄으로서 이야기의 공식적 구조를 파악하려는 계열체적 분석의 방법이 있고, 또 사건의 전개에 초점을 두어 무엇이 일어나고 있는가를 밝히는 이야기의 통시적 속성을 이해하는 통합체적 분석이 있다. 담화의 측면에서는 이야기의 화자 혹은 서술자로서의 작가나 등장인물의 화법, 시점, 묘사에 대한 분석을 포함한다. 구체적으로 서술자 유형(내레이션), 서술 모드, 서술자의 위계구조, 시점 등이 포함된다.

본 연구에서는 특정 회 차의 에피소드를 분석하여 이야기의 측면에서 인물, 사건, 배경을 기본 분석 요소로 삼아 인물에 대한 분석을 시도하고 사건의 전개를 파악한다. 특정 회 차의 에피소드를 분석하여 전체의 프로그램을 대표하는 이유는 이 다큐멘터리가 전체 에피소드를 아우를 수 있는 공통된 인물 구성과 서사 구조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공통된 인물 구성으로는 두 주인공 한국인 시어머니와 외국인 며느리가 중심 플롯을 이끌어가는 두 주체이며, 그 외에 한국에서의 시댁 가족들, 며느리의 고향에 있는 친정 가족들이 짧은 분량으로 구성되어 있다. 또한 서사 구조는 한국-며느리의 고향-한국으로의 공통된 여행 서사로, 그 안에서 갈등과 해결의 변주만을 보인다. 본 연구에서는 최근에 방영된 34회 차 <버릇없는 며느리와 속 끓이는 시어머

니> 에피소드를 이야기의 측면에서는 인물 즉, 행동자 관계에 초점을 맞춰 분석하고, 이 다큐멘터리의 중심 서사인 여행 서사를 분석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본 다큐멘터리에 드러난 이주 여성의 재현 방식을 비판적으로 검토하였다.

<다문화 고부열전> 이야기의 구성요소는 크게 인물과 그 관계도 배경으로 구분해 볼 수 있다. 매회 반복되는 주요 인물은 이민해 온 외국인 며느리와 한국인 시어머니이다. 이 두 인물 사이의 문제와 문제해결이 스토리를 이끌어간다. 그 외에도 남편과 자녀, 친정식구들이 등장한다. 며느리와 시어머니 사이의 관계의 문제에 집중하기 위해서, 이 두 인물 외에는 이 다큐멘터리에서 비중 있게 다루지는 인물이 존재하지 않는다. 남편조차도 한 주체로 그려지기 보다는 아내와 어머니 관계를 설명하는 수동적인 역할을 할 뿐이다. 34회 차 <버릇없는 며느리와 속 끓이는 시어머니> 에피소드의 경우 행동자 모델*에 따라 분석해 보면, 주체인 며느리와 대상인 칭찬과 사랑의 욕망의 측은 며느리가 갖고 있는 소외감과 인정의 욕구가 발신자의 역할로 해석되며, 며느리가 원하는 칭찬과 사랑을 수신자인 며느리에게 보내는 경로를 보여준다. 이 과정에서 며느리의 욕망은 자신의 성격과 그 동안의 소외감을 설명해주고 시어머니에게 이해시켜주는 친정식구들인 보조자에 의해 도움을 받을 수 있지만, 여전히 남아있는 고부 관계와 시댁 식구들에 의해 반대를 받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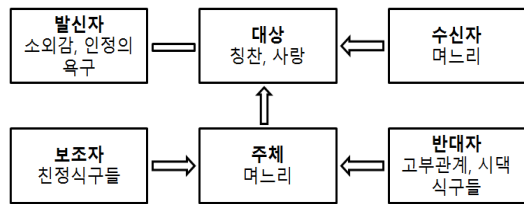


그림 1. 34회 차 에피소드의 행동자 모델

한국 사회에서 고부의 의미는 강한 시어머니와 약자

* 행동자 모델의 그레마스 이론으로 텍스트가 갖는 다양한 가치들을 체계적으로 읽어낼 수 있는 효용성을 제공해준다. 그레마스에 의하면 행동자 모델은 주체와 대상, 발신자와 수신자, 보조자와 반대자의 대립 쌍으로 구성된다. 이러한 대립 쌍은 각각 욕망, 전달, 능력이라는 세 가지 축으로 구성된다[12].

인 며느리의 관계가 내포된다. 고부 관계를 다루고 있는 다양한 미디어 텍스트들이 이러한 권력관계의 전복을 보여주는 듯 하면서도 여전히 전통적인 가부장제도의 하의 고부관계를 끊임없이 재생산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다문화 고부 열전>의 에피소드 <버릇없는 며느리와 속 끓이는 시어머니>에서도 유사한 장면이 다수 포착된다. 베트남 며느리는 시어머니에게 반말을 하고 말대꾸를 하는 등 자신의 목소리를 내는 인물로 묘사되기는 하지만, 결국 이러한 모습은 제목에서 알 수 있듯이 버릇없는 모습으로 재현될 뿐이다. 며느리의 당당한 자기표현은 결과적으로 인정과 사랑을 원하였다는 결론으로 끝난다.

IV. 여행서사가 만드는 사소한 갈등

본 연구의 분석대상은 EBS에서 방영되고 있는 <다문화 고부 열전>이라는 프로그램이다. 이 프로그램은 2013년 10월 18일에 1회가 방영된 후 2015년 5월 21일까지 총 81회가 방영되었다. 서사를 이끌어가는 두 축은 외국인 며느리와 한국인 시어머니 둘로 이들의 고부관계가 프로그램의 핵심이다.

<다문화 고부 열전>의 중심 서사구조는 며느리와 시어머니의 '역지사지' 힐링 여행이다. 며느리와 시어머니가 둘이서 함께 며느리의 출신 국가로 여행을 떠나는 이른바 여행 서사인 것이다. 여행 서사는 다문화를 재현하는 다양한 미디어에서 선호하는 서사이다. 이 서사는 표면적으로 오랫동안 친정에 가지 못한 결혼이주여성을 친정에 보내주는 시혜적인 과정으로 그려지며, 다문화가정 자녀에게는 엄마 나라를 이해하고 외가 식구들과 상호작용 할 수 있는 문화적 정체성을 확립하게 되는 과정으로 재현된다. 그렇다면 이러한 서사 방식과 이러한 서사를 재현하는 방식에서의 내포하고 있는 텍스트 생산자의 관점은 무엇일까?

프로그램에서 한국 시댁이라는 공간은 시골집, 노인정, 포도밭 등의 구체적인 장소로 이미지화된다. 토크쇼 형식으로 된 한국인 고부관계를 다루는 프로그램에서 등장인물이 주로 고학벌, 고소득자 며느리와 시어머니

인 것과는 대비되는 지점이다. 결혼이민자 여성의 친정 공간도 별반 다르지 않다. 내레이션은 며느리의 친정이 얼마나 먼 곳인지, 얼마나 시골인지를 강조한다.

며느리의 문화적, 민족적 배경이 되는 공간에서도 에스니시티는 단지 진시될 뿐이다. 다양한 인종적, 민족적, 종교적, 문화적 배경을 가진 이주 여성을 이해할 수 있는 공간임에도 불구하고 음식과 언어 등 단지 민족적인 것들의 단순한 나열로 재현된다. 프로그램은 며느리의 친정 공간의 삶을 짧은 여행 기간 동안 즐길 수 있는 축제처럼 그린다.

이러한 축제를 통해 다문화가정의 문제는 해결된다. 결혼이민자여성은 가정 내에서 여러 가지 현실적인 문제를 경험한다. 가시화되는 신체적 폭력 이외에도 남성이나 시댁식구들이 결혼이민자여성의 문화나 모국에 대해 아무런 정보 없이 일방적으로 한국의 음식과 풍습을 강요하는 인권침해가 다수의 다문화가정에 갈등으로 존재한다[13]. 다문화가정이 겪는 가장 큰 어려움은 가족 관계 안에 존재하는 한국의 성(gender) 역할과 정체성을 결혼이민자여성에게 강요하면서 시작된다. 가족 구성원에게 기대되는 고정된 성역할은 한국적 권위주의를 형성하고 재생산하는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 한국사회의 변동으로 성역할 역시 사회적으로 변화하고 부부 혹은 다문화가정 내의 성역할에 대한 인식 역시 변화하였지만 어떠한 이유에서인지 다문화가정에서는 이러한 전통적 권위주의로 인한 갈등이 주된 이유가 되고 있다.

이는 <다문화고부열전>의 등장인물들에게도 해당된다. 프로그램에 등장하는 모든 며느리는 시어머니와 갈등을 겪고 있는데, 그 이유는 '며느리가 손으로 밥먹어서, 며느리가 캄보디아 미신을 믿어서, 며느리가 밥을 잘 안먹어서, 며느리가 외동딸이라 버릇이 없어서, 며느리가 시어머니의 말에 대답을 하지 않아서, 며느리가 시어머니의 말에 말대답해서' 등으로 매우 다양하다. 그러나 이러한 이유들은 며느리가 시어머니가 요구하는 점을 따르지 않았기 때문에 갈등이 시작되었다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갈등은 다문화가정을 이루는 국가·민족적 정체성에서 비롯된 것으로 단기간에 해결 및 관리되기 어렵지만 마법처럼 시어머니와 며느리가

함께 여행을 다녀오면서 모든 갈등은 해결된다.

<버릇없는 며느리와 속 끓이는 시어머니> 편을 사례로 들면 다음과 같다. 이 편에서는 며느리의 친정인 베트남으로의 여행 서사가 그려진다. 등장인물의 장소의 이동에 따른 주요 서사는 다음 [그림 2]과 같다.

위의 에피소드의 경우, 결혼이민자여성이 겪는 문제는 시어머니와의 관계에서만 나타나고 있다. 며느리와 시어머니의 불화는 결혼이민자여성이 시어머니에게 반말을 하고 말대꾸를 하며, 집안일을 하는 스타일의 차이에서 기인한다. 결혼이민자여성은 시어머니가 칭찬은 하지 않고 잔소리만 한다는 불만을 가지고 있고, 함께 사는 자신보다 형님을 더 좋아한다는 것에 상처받는다. 이 문제는 내레이션과 인터뷰 영상을 통해 텍스트 전면에 배치되며, 가장 중요한 문제이고 해결되어야 하는 문제로 50분 내내 다루어진다.

장소의 이동	한국 시덕	베트남 친정	한국 시덕
주요 서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베트남 며느리가 시어머니에게 반말을 하고 말대꾸를 함 •시어머니는 농사를 짓지만 며느리는 농사일을 하지 않음 •시어머니는 며느리에게 자세히 알려주지 않음 •따로 식사를 준비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시장 구경할 때 며느리가 설명해주지 않음 •며느리가 친정 부모와 할머니에게 장난치고 편하게 대함. •바나나 농장에서 일을 잘 함 •함께 식사 준비를 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손을 잡고 돌아옴 •며느리는 시어머니에게 존대를 함 •시어머니는 며느리에게 칭찬을 해줌

그림 2. <버릇없는 며느리와 속 끓이는 시어머니> 여행 서사 구조

어떠한 문제가 우선되어야 한다고 말하고자 하는 것은 아니다. 다만, 본 다큐멘터리의 서사 구조에서 결혼이민자여성의 현실은 단순하게 재현되고 여러 가지 문제들은 사소해진다. 49살의 남편과 28살의 아내가 결혼하게 되는 사회 문제나 결혼중매시스템의 문제 등은 등장조차 하지 않는다. 또한 결혼이민자여성과 한국인 시어머니의 문제가 여행을 매개로 비교적 쉽게 해결되는 장면을 보여줌으로써 이러한 문제가 단지 개인들의 문제로 보이게 한다. 시골에 사는 시어머니도 저개발국가 출신의 이주 여성도 이중 삼중의 차별을 경험하지만 이러한 문제제기는 등장하지 않는다.

이 프로그램은 한국으로의 정착 장면에서 ‘시어머니

가 이제 며느리를 믿을 수 있을 것 같다’고 이야기 하며 절정으로 치달는다. 여행가기 전 한국은 고부의 갈등 공간으로, 여행지인 며느리의 친정은 고부 갈등이 절정을 이루고 하강하는 공간으로 그려지며, 되돌아온 한국은 며느리와 시어머니가 모든 갈등을 이겨내고 행복한 가정을 이루는 공간으로 그려진다. 여행서사는 한국에서 해결되지 않았던 고부 갈등이 며느리의 고향으로의 여행을 통해 해결되는 과정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V. 결론

<다문화 고부 열전>은 다문화가정이 처해 있는 여러 가지의 문제를 며느리와 시어머니 간의 고부갈등으로 사소화 시키고 있다. 이주여성과 시어머니 이 두 여성 주체는 프로그램 내에서 끊임없이 자신의 이야기를 하는 존재로 나오지만 이러한 담화에는 그들의 주체성이 드러나지 않는다.

이 프로그램은 며느리와 시어머니가 둘이서 함께 며느리의 출신 국가로 여행을 떠나는 단발성 여행 서사를 통하여 시어머니와 며느리는 갈등을 해소하고 행복한 가정을 꾸리게 된다. 시어머니와 며느리가 한국으로 되돌아오는 과정은 며느리와 시어머니의 화해 과정을 의미한다. 이는 이주 여성과 한국인 시어머니의 문제가 여행을 매개로 비교적 쉽게 해결되는 장면을 보여줌으로써 이러한 문제는 ‘사소한’ 개인들의 문제로 보이게 한다.

이 프로그램은 ‘다큐멘터리’라는 장르를 제목에 배치하며 수용자들이 프로그램의 내용을 ‘사실 그대로의 것’으로 믿게 한다. 입장을 바꿔야지만 서로를 이해할 수 있는 계몽의 대상으로서 두 여성을 표상하고 있으며 그 외에도 두 여성이 사회 경제적 계층도 상대적으로 낮게 재현함으로써 이들에 대한 고착화된 이미지를 만들 가능성도 존재한다. 이는 ‘다문화’에 대하여 이야기하고 있지만 다문화가 가진 다양성을 인정하고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다문화가정의 행복을 위해서는 며느리와 시어머니의 상호이해와 화해가 중요하다는 목소리를 대

변한다.

2006년을 기점으로 시작된 결혼이민자여성에 관한 미디어의 재현 방식은 현재에도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 결혼이민자여성의 삶을 이해하고 그들과 일반 대중의 사이를 좁히는 현재의 표면적인 방식은 그들의 삶을 오히려 타자화하고 그들과 대중의 거리를 확인하는 것에 그치고 있다. 미디어가 ‘배타적으로 현실에 관해서만 이야기한다’라고 비난한 바르트(Barthes)의 이야기는 여전히 우리 사회의 미디어의 다문화 재현 방식에 상통한다. 결혼이민자여성은 다문화가정 내에서 그들의 주체성과 정체성이 부정당하며 적대적인 위치를 차지한다. 그들의 삶의 이해라는 일련의 담화에 의해 평등한 것으로 형성된 서사구조는 동시에 그것이 형성되는 사회적 맥락에 의해 종속된 정체성이자 삶이라고 이해된다. 결혼이민자여성은 여전히 이방인이자 그들의 삶은 사건으로 받아들여지는 것이다. 결혼이민자여성의 다양성과 다성성을 주체화할 수 있는 서사의 권리를 부여하는 방법, 새로운 미디어 재현양식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

참고 문헌

- [1] 김영순, 윤희진, 강현민, 결혼이주여성들을 위한 설화 스토리텔링 활용 문화교육 방안, 인문콘텐츠학회 학술대회 발표집, 2011
- [2] W. Lippman, *Public Opinion*, New York: Harcourt Brace, 1922.
- [3] 양정혜, “소수 민족 이주여성의 재현: 국제결혼 이주여성에 관한 뉴스보도 분석”, 미디어, 젠더 & 문화, 제7권, pp.47-77, 2007.
- [4] 오경석 외, *한국에서의 다문화주의: 현실과 쟁점*, 한울아카데미, 2007.
- [5] 임정수, “다문화 구성원의 미디어 노출 관행과 다문화교육적 대응”, 다문화교육, 제3권, 제2호, pp.69-87, 2012.
- [6] 나미수, 전오열, “TV다큐멘터리의 서사 비교연구: ‘트렌스젠더’ 주제 <추적60분><그것이 알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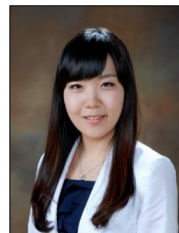
싶다>를 중심으로”, 언론과학연구, 제6권, 제4호, pp.89-132, 2006.

- [7] 황라경, 텔레비전 휴먼다큐멘터리의 다문화재현 방식에 관한 연구: 국제결혼가정을 다룬 KBS2 다큐미니시리즈 <인간극장>의 사례를 중심으로, 경희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9.
- [8] 장민정, “미디어의 다문화 재현에 대한 비판적 담론 분석: <다문화 고부 열전>을 중심으로”, 다문화교육연구, 제7권, 제3호, pp.67-86, 2014.
- [9] 홍지아, 김훈순, “다인종 가정 재현을 통해 본 한국사회의 다문화 담론: 텔레비전다큐멘터리 ‘인간극장’을 중심으로”, 한국방송학보, 제24권, 제5호, pp.544-584, 2010.
- [10] 심훈, “다문화 휴먼 다큐멘터리에 관한 비판적 담론 분석”, 한국방송학보, 제27권, 제4호, pp.131-167, 2013.
- [11] 장민정, “미디어 다문화 담론 분석”, 다문화교육연구, 제6권, 제3호, pp.157-179, 2013.
- [12] 김기국 외, *인문학과 문화콘텐츠*, 다중·미디어, 2006.
- [13] 이주여성긴급지원센터, 2010.

저자 소개

강 현 민(Hyeonmin Kang)

정희원



- 2011년 2월 : 성균관대학교 사학과 (문학사)
- 2013년 2월 : 인하대학교 다문화학과(교육학석사)
- 2013년 3월 ~ 현재 : 인하대학교 다문화학과 박사과정

<관심분야> : 다문화교육, 문화다양성, 다문화 콘텐츠